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1-16**

1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2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4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7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도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9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5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고난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하신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AMI** 가족의 가장 새로운 일원이 된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에 응답하며 섬기는 **AMI**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BVC** 가족들에게도 기도하기는, 오늘 함께한 모든 손님들, 특별히 **COS** 애너하임과 **COS** 치노에서 오신 형제자매들을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조정하고 무려 12일의 휴가를 내어 단기선교(**STM**)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 조정은 대부분 불편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일상의 리듬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지, 또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왜 매주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듣는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면, 일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단기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마음과 도전을 모두 받으시는 선교사와 같은 마음이 생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하며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단기선교팀이 함께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할 때,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특히 인생의 중반부에 들어설 때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저도 요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이 주제를 자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가장 많이 말리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행동하는 방식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고난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소식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가보의 예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가보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가보를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는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 말씀하셨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축복이 기다리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복이 기다리는 곳에는 많은 경우 고난과 아픔과 시련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나 미래 사건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우리를 부와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점술이나 운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종종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서 기다리는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기쁨입니다.

제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8년, 저와 가족은 하와이 코나에 있는 YWAM(예수전도단)의 가족 DTS에 참여했습니다. 그해 5월,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크게 폭발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용암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참가 예정자의 3분의 2가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직접 용암에 의해 생명이 위험해져서라기보다,

화산가스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제 어머니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적당히 믿어라.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그들의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 두 주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거둬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났고, 예언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자매가 우리를 애너하임의 작은 교회인 **Church of Southland**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후 애리조나에 **AMI**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9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의 영적 성장은 그 짧은 2주 동안 놀라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평생 간직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우나케아 천문대 정상에서 바라본 하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선 안에서 별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화성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화산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결국 우리에게서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우나케아에서 내려오던 길에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붉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했던 전문가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기다리고 있는 위험과 어려움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분명한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고난을 미리 보여 주시는 예언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사도행전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르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늘나라에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생계가 걸려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의 동행자들은 단지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한 목사님 친구가 자신의 목사 안수식 때 있었던 아름답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수식에 와서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었고, 모두에게 기쁨과 축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안수식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 곧 목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인도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가장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솔직했습니다.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가보의 예언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2018년** 우리가 하와이 YWAM에 가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우리를 말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할지라도, 성령께서 동시에 우리가 그분이 부르시는 곳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시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며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성령께서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혼란과 변화를 가져올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과 더불어 바울의 안전에 대한 걱정까지, 아마도 제자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같은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대가가 될 것이며, 그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뒤흔드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로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문화를 세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금요기도회(FNP)가 왜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AMI 교회가 금요기도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apestry 교회는 토요일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할리우드 중심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토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중심에 있는 Tapestry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200명의 성도들이 풀 워십팀과 함께 2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저에게 BVC에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금요일 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파티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쾌락에 자신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한 주를 보낸 후 세상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으며, 또한 주님의 날인 주일, 곧 한 주의 첫째 날에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넷째,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AMI**의 자매 교회들과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단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AMI** 교회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BVC** 안에 기도의 문화를 세우라고 제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가를 요구하며,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애리조나에는 기도의 문화가 부족하며, 금요일 저녁 시간을 성도들에게서 기꺼이 내어 달라고 요청할 교회는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Bridge of the Valley**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계속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아이를 맡길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해요." "금요일은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한 주 내내 술을 안 마셨는데, 금요일만큼은 한잔하면서 쉬고 싶어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늦게까지 놀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들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핑계들이 모두 헛된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과거에는 주일예배 외에 다른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할 때 똑같은 핑계들을 모두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희생을 요구하며,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의 대가보다 불순종의 대가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순종의 처음 대가보다 훨씬 더 크고 파괴적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바울인 이유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힐까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바라보는 가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달랐고, 심지어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결국 그들도 바울이 말하는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치러야 할 이 대가, 설령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영원토록 치르게 될 대가보다 훨씬 낫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대가, 성령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대가, 이 모든 것을 치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면 되겠지.'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모두 삼손과 그의 머리카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머리카락이 엄청난 힘의 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의 서약을 상징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함께하며,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실인으로 부르신 사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힘을 사용하려 했을 때, 그의 힘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삼손은 마지막 한 번의 힘을 다시 얻어 원수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부르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야 삶이 정리되어 기도도 시작하고, 선교도 가고, 찬양팀도 섬기고, 예전에는 준비되지 않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미 그 배는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대가보다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대가입니다. 2018년 우리가 하와이에 갔을 때, 그 해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이 있었던 유일한 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언기도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의 간증을 통해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화산은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 리나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은 물론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산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축복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화산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불과 8년 전, 가족 DTS를 위해 2주 동안 일을 쉬는 것은 경제적으로 거의 자살행위와 같았습니다. 당시는 제 사업이 막 성장하려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리나와 아이들만 보내고 저는 남아서 일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 가족은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애리조나에 AMI 교회를 세우는 문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치른 대가는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해 저는 하늘 아버지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우리 가족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며, 그분의 음성에 마음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설교하는 동안 이 더운 날씨에 골프 티타임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벌써 겨울 휴가를 계획하며, 해변에서 마가리타를 마실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는 가족 여행이나 취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가족을 사랑하고, 취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도 소중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없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반드시 끝날 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도록 부르시고, 우리의 일상을 흔드시는 거룩한 불편함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젊은 분들은 지금 최고의 쿼터백으로 패트릭 마흐스나 조시 앨런, 또는 라마 잭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이전에, 가장 뛰어난 순수 패서(pocket passer)였고, 가장 강한 어깨와 가장 빠른 릴리스를 가졌던 선수는 단연 **Dan Marino**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완벽한 쿼터백을 만드셨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경기를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스물세 살, **NFL** 두 번째 시즌이었던 **1985**년에 그는 **Miami Dolphins**를 슈퍼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인, 가장 어린 나이에 슈퍼볼 선발 쿼터백이 된 선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경기에서 마이애미는 크게 패했습니다. 경기 후 마리노는 이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서 슈퍼볼을 몇 번은 우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슈퍼볼 무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이애미 역시 그 이후 다시는 그 무대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한 번뿐인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순간이다." 준비는 평생 걸릴 수도 있지만, 기회는 평생 단 한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결국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방관자로 남아,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